

'안녕, 부안의 밤 그리고 바다'

'부안문화유산야행' 30~31일 당산문화유산 중심 전시·공연·체험 등 30개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오는 30일~31일 부안 당산문화유산 밀집구역에서 '2024 부안문화유산야행(이하 부안야행)'의 화려한 막을 연다. 부안야행의 모든 행사는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된다.

부안야행은 부안군과 백두기획이 기획하여 국가유산청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가 세 번째 문화행사이다.

부안야행은 야간문화를 향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안읍에 밀집된 당산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시·공연·체험 등 총 3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당산문화의 핵심지 부안에서 개최되는 부안야행은 당산문화의 핵심인 대동단결을 콘텐츠화한 행사이다.

이번 야행은 '빛 따라 부안을 거닐다, 야경(夜景)', '부안의 이야기꾼을 찾아 걷는 부안, 아로(夜路)', '무형유산으로부터 보고·듣고·만들다, 야설(夜設)', '부안의 옛날 옛적 이야기, 야사(夜史)', '부안의 모습 나의 모습, 야화(夜畵)', '확자지결 부안의 먹거리장터, 야식(夜食)', '부안의 빛을 담은 장터, 야시(夜市)', '부안의 밤을 기억해, 야숙(夜宿)' 등 총 8가지 테마로 세부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부안야행을 여는 개막 행사는 30일 오후 7시부터 군청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식전행사로



부안군은 오는 30일~31일 부안 당산문화유산 밀집구역에서 '2024 부안문화유산야행'의 화려한 막을 연다.

부안 당산문화를 재현한 부안당산제, 부안농악 등 무형유산 공연, 개막선언식 등 다양한 무형유산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행사와 8야 체험프로그램 등을 참여하고 도장찍기를 완성하면 기념품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안 당산 오리 인형극, 진석투 이야기 연극, 고려침자 만들기, 국가문화유산 색칠하기, 부안이야기 등 온가족이 부담 없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로 세번째를 맞이하는 부안문화유산야행은 부안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담으면서도 현대화하여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며 "부안군민과 방문객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많은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부안의 문화유산을 즐겁게 체험하며 역사와 문화를 쉽게 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버려지는 황금사과로 만드는 추억여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10월 13일까지 김순화 개인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는 8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김순화 개인전 '버려지는 황금사과로 만드는 추억여행'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버려지는 폐자원과 우리나라 전통한지라는 독특한 조합을 이용해 군산의 관광지와 풍경을 회화와 조형으로 표현한 '업사이클링' 작품 22점이 전시된다.

'업사이클링'이란 기존에 버려지는 물건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술적 디자인을 가미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플라스틱, 계란판, 청바지, 커피박 등을 활용하여 만든 순수 창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김순화 작가는 현재 푸른세앗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정크아트 & 업사이클링 장려상,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한국전통공예 산업진흥협회장상,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동상 등의 화려한 수상이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도 작가는 한지공예 및 업사이클링 작품 활동을 통해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 골골쑹쑹'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체부·농식품부 재능나눔 협업사업으로 공연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구석구석 문화배달 예술, 골골쑹쑹'을 진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정음,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문화취약지역 10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재단에 따르면 27일 문화체육관광부·농식품부 협업사업 일환으로 진안군 대성마을 마을회관에서 공연 무대를 펼친다.

이어 29일에는 무주군 부남면 유영마을회관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을 선보인다.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은 △갤러리 여름부채 만

들기, △목공 방향제이 만들기, △미니 테이블과 미니 가방 전사작업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골골쑹쑹 찾아가는 산골극장'에서 상영하는 '서울의 봄'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세부일정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과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교육문화팀(063-230-745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예술회관, 국립국악원 '필운대풍류' 9월 5일 공연

부안예술회관에서 오는 9월 5일 저녁 7시 30분에 부안군,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필운대풍류'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필운대풍류'는 조선 말기 악공 박효관이 인왕산 자락 필운대에서 승평계를 소집해 가객단과 기인, 양반, 왕실 귀족 등과 함께 풍류를 교류하는 내용으로 풍류음악, 정가 등을 배치 구성한 작품이다. 본 공연을 통해 봄의 멋과 향, 아름다움을 공연으로 보고 듣고 즐기며,

조선시대 풍류객들이 자연과 함께 예술을 만끽하던 풍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이 공연은 국립국악원의 "국악을 국민 속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본 공연은 관람료가 무료이며 좌석예매는 현장발권 및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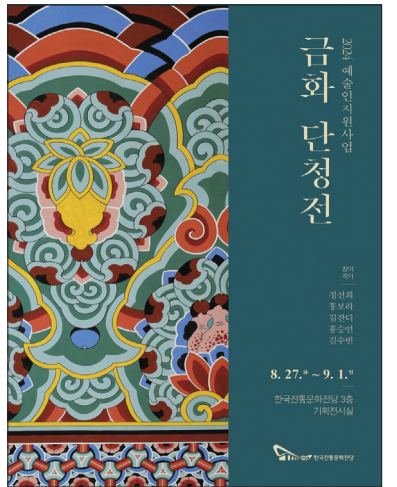
한국전통문화전당, '금화 단청전' 기획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당 3층 기획전실에서 '금화 단청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는 단청을 통해 한국의 미와 전통예술을 기록하는 예술단체인 '금화'의 첫 번째 전시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단청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전시에서는 단체작품 6점과 더불어 △정선희 △홍보라 △김진디 △홍승연 △김수빈 등 작가 5명의 개인작품 28점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자신의 미감을 함께 녹여낸 작품과 새롭게 배치해 화면 안에 재해석한 작품,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와 설화를 담은 작품 등 전통과 현대의 미를 연결한 다양한 단청 작품들이 전시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 온라인 예매 오픈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9월 6~8일 전주 구도심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전주씨네투어 with 폴링인전주' 행사의 세부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26일부터 온라인 예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예매는 '네이버 예약'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서는 네이버 회원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https://www.jonjufes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